

# 광주 1990원 전남 1984원 휘발유값 역대 최고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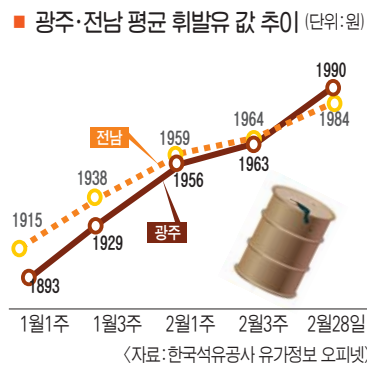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평균 휘발유 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200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은 광주가 1당 1990원, 전남이 1당 1984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광주 자치구 중에서는 동구가 1당 2017원으로 평균 휘발유 값이 가장 높았으며, 북구(1994원), 남구(1989원), 서구(1986원), 광산구(1985원) 순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판매가격이 2000원이 넘는 주유소도 53곳으로 전체 주유소(330곳)의 16%에 달했다.

특히 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중인 휘발유 값에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알뜰주유소도 지역에서 확산 속도가 저조해 유가 상승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알뜰 주유소는 광산구에 2곳,



전남에 50곳이 들어선 상태다. 유가 고공행진으로 서민 가계는 물론 항공·해운업계도 비상이 걸리면 서 지난 2008년 말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유류세 인하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국제원유 값이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12~0.4%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휘발유 값이 다른 물가를 자극할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0% 내렸지만 기름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별 효과를 못 봤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작년에 정부의 압박으로 공급가격을 내렸던 정유업체는 이번엔 정부가 양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휘발유 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국제 원유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6일 협상 결렬 등 탓에 이란 위기가 고조돼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며 "당분간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유공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 핵협상 결렬 등 탓에 이란 위기가 고조돼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봄 산행 엿지있게~

28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광장에서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2012 봄·여름 신상품을 선보였다. 올 봄 아웃도어는 역동적인 디자인과 화려한 컬러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신세계 제공>

## 짬뽕 한그릇에 이틀치 나트륨

### 식약청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 발간

“짬뽕 1인분에 들어 있는 나트륨은 하루 섭취 권고량의 2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영양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을 발간해 전국 보건소와 교육청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집에는 국민이 외식으로 많이 먹는 음식 130종의 열량·탄수화물·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과 포화지방산·불포화지방산·트랜스지방산 등 지방산을 종류별로 수록했다.

특히 음식별로 1인분에 든 영양성분의 함량을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따른 비율로 별도 표시해 적정 섭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외식 때 흔히 먹는 짬뽕 한그릇에는 나트륨이 하루 섭취 권고량(2천mg)의 200%, 콜레스테롤은 36%, 지방은 38%, 탄수화물은 31%가 들어 있다.

짬뽕 뿐 아니라 국물이 있는 음식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높다.

한은은 “음식별 영양성분 정보가 약화된 것은 5만원권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만원권 발행잔액은 2010년 말 19조원에서 2011년 말 26조원으로 36.8%나 증가했다.

한은은 “증권거래 관련 자금이체가 늘어나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공동안을 통한 계좌이체가 늘어난 덕분에 계좌이체 결제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어음·수표의 결제수단 기능이 약화된 것은 5만원권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만원권 발행잔액은 2010년 말 19조원에서 2011년 말 26조원으로 36.8%나 증가했다.

연합뉴스

### 여행사 무단 일정변경 배상책임

고객의 서번 동의없이 무단으로 여행 일정을 변경한 여행사에 배상 명령이 떨어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삼일여행사가 독도여행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고객에게 225만원을 배상하라는 중재를 심사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관광객은 지난해 3월 울릉도 여행 계약을 하면서 독도 관광이 포함된 일정표를 받았는데 독도 관광을 하지 못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여행사 측은 담당자의 실수로 수정되지 않은 견적서였다면서 나중에 변경된 일정표를 이메일을 통해 통지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여행사 주장대로 일정이 변경된 일정표를 교부했다더라도 계약금이 입금된 이후 여행 일정을 변경하려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어겼다고 배상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 신용카드 사용 540조 돌파

## 역대 두번째

201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540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2번째 규모다.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지급결제 동향'을 보면 2011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은 540조794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580억원(9.5%) 늘었다. 카드 사용액은 개인과 법인의 신용판매액과 현금서비스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카드 사용액은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619조1580억원에 이어 2번째로 많다.

하루평균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조4816억원으로 2010년(1조3527억원)보다 9.5% 증가했다. 하루평균 사용건수는 1806만건으로 전년보다 13.4% 늘었다.

2011년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1억2천214만장이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4.9장, 국민 1인당 2.5장에 달했다.

신용카드 외 체크카드의 이용실적은 하루평균 520만건, 190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4.0%, 34.1% 늘었다. 증가율로는 신용카드를 압도했다.

한은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발급이 쉽고 소득공제율이 높으며 부가서비스도 신용카드 수준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2010년 말 7418만장에서 2011년 말 8464만장으로

로 14.1% 늘어났다. 신용카드 증가율(4.8%)을 크게 넘어섰다.

반면 선불카드 이용실적은 하루평균 15만건, 55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7.0%, 14.9% 감소했다. 직불카드 역시 하루평균 이용실적이 전년보다 건수는 16.6%, 금액은 14.4% 줄었다.

카드를 포함한 비(非)현금 지급수단에 의한 지급결제 규모는 하루평균 4077만건, 278조원으로 전년보다 10.5%, 3.8%씩 늘었다.

종류별로는 어음·수표 결제규모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약속어음 등의 이용이 줄어들어 하루평균 건수는 246만건, 금액은 33조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에 비해 각각 17.5%, 2.6% 감소한 것이다.

전체 카드의 하루평균 이용실적은

건수는 2341만건, 금액은 1조7000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각각 17.1%, 11.7% 증가했다.

계좌이체 결제규모는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늘어나는 데 힘입어 하루평균 건수는 1천473만건, 금액은 243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8%, 4.7% 늘었다.

한은은 “증권거래 관련 자금이체가 늘어나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공동안을 통한 계좌이체가 늘어난 덕분에 계좌이체 결제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어음·수표의 결제수단 기능이 약화된 것은 5만원권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만원권 발행잔액은 2010년 말 19조원에서 2011년 말 26조원으로 36.8%나 증가했다.

연합뉴스

## 카드 수수료를 차별 금지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카드 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가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업종·규모별 가맹점의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것을 막

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여신금융업법은 그동안 “당국에서 수수료를 일괄 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문제가 생기면 은행대출금리도 정부가 정할 것이냐”라며 반발해왔다.

연합뉴스

# 창업·中企, 은행 문턱 낮아진다

## 금융위 “중과실 없으면 부실 책임 묻지 않아”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은행의 면책제도 혁신안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요건을 구체화해 검사·제재 규정과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내부 절차를 지켰거나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했다면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생겨도 면책된다.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고의나 중과

실이 없는 등 22가지 면책 요건에 해당하면 대출 부실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면책 처리한 결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도 인정된다.

면책 처리된 대출은 은행 내 인사와 영업점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 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소유·경영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이 활성화하도록 KED가 풍부한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다.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은 KED에 제공하는 기업 신용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더 풍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 담보를 평가하는 전담 부서를 두고 일정 금액 이상의 담보는 최소 3명 이상의 협의체를 꾸려 말도록 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기업금융나눔’을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권의 지원 정보와 창업, 투자유치, 해외진출, 지적재산, 세제, 법률, 구조조정 등 경영 관련 정보를 소개한다.

연합뉴스

# 전북사업으로 부자되세요!

전남 완도에 있는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완도전복가공산업활성화사업단은 지식경제부 지원 RIS 사업단으로서 전북으로 성공하려는 기업이나 창업자를 위해 제품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면서 중국, 일본 등 수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전복 건제품, 통조림, 수출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

### 이제 완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하세요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면, 사무실, 파일럿프랜트,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특히 통조림,연질캡슐 생산라인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등 해외투자 기업체의 국내이전을 준비중인 사업가분
- 청년 취업희망자, 은퇴자 소규모창업 희망자 분
- 재외 동포, 중국인, 일본인 등 해외 기업가 완도에서 사업하실분
- 북경, 상해 정부 수산물 매장 진출을 희망하시는분 많은 연락과 상담 바랍니다

공장전경

통조림·연질캡슐 설비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산업센터 부설 완도전복가공산업활성화사업단**

문의전화 : 061-550-1717

메일 : realgon85@gmail.com · 홈페이지 : www.wapic.co.kr